

신안군 반세기 만에 문연 책방, 군민 인기 '폭발'

최신 도서 포함 새 책 한달에 최대 3권 무료대여 내일 김미승 작가와 함께 저자 초청 강연회 개최

신안군에서 지난 10월 31일, 50년 만에 처음으로 문을 연 '1004 책방'이 군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1004 책방은 군민들에게 최신 도서를 포함한 새 책을 한 달에 최대 3권까지(4인 가족 기준 최대 12권)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으며, 개장 10일 만에 700권 이상 책을 대여하였고, 등록한 회원 수도 300명을 넘어섰다.

또한, 1004 책방은 주민들이 읽고 싶은 책을 신청하면 이용자 편의를 위해 책 도착 알림 문자 서비스도 제공한다.

오는 11월 21일 1004 책방에서는 중견 작가 김미승 씨를 초청하여 저자 초청 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 작가는 시 부문으로 등단한 이후 총 13권의 저서를 출판했으며, 그중 「꿈을 파는 달빛 제과점」은 2023년 전남도립도서관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1004 책방 운영자 임경자 대표는 "은빛 독서클럽, 동아리 모임과 전통 채색화 민화, 가야금 등 다양한 문화강좌를 운영할 계획이다"라며, "이러한 활동으로 지역 공동체 중심의 평생교육 서비스 확대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 가족센터와 1004 책방이 가족이 함께 찾는 학습 및 여가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1004 책방은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학습의 장을 제공하여 지역 사회의 문화적, 교육적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신안=이덕주기자

영암군립하정응미술관, 드로잉 프로그램 2기 개설 수강생 모집

영암군립하정응미술관이 '제2기 드로잉, 일상을 그리다'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1기 드로잉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관심과 호응, 교육 재개설 요청으로 이뤄진 것.

2기 드로잉 수업도 노여운 작가가 진행한다. 노 작가는 평범한 골목길, 사람들의 흔적을 자신만의 색으로 표현하며 일상의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작품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미술관에서는 노여운 작가와 수업하며 평범한 일상을 특별한 순간으로 남겨보고 싶은 18세 이상 지역민과 직장인 수강생을 초대하고 나섰다.

2기 프로그램은 기초 이론인 '기초 드로잉'으로 시작해 '음식 드로잉' '복합 드로잉' 등을 거쳐 수강생 자신만의 드로잉 스타일을 발견하는 것이 목표다.

수업은 다음달 6-28일 동안 매주 수요일 다섯 차례 오후 6시 30분부터 시작한다.

수강생 모집은 12/5일까지고, 교육 참여 희망자는 하정응미술관에 방문하거나 이메일(hiyunji@korea.kr)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립하정응미술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안내는 061)470-6842에서 한다.

영암=조대호기자

'제3회 무안 YD 페스티벌'서 무안 군고구마 디저트 선보여

무안군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단장 김명진)은 남양중앙공원 일원에서 펼쳐지는 '제3회 무안 YD 페스티벌' 기간 판매존에서 무안 군고구마 디저트 판매부스를 운영한다.

이번에 참여하는 대상 업체는 작년 11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일환으로 추진했던 '무안 군고구마 디저트 공모전'에 참여한 30개소 중 최종 선정된 판매 디저트 카페 7곳이다. 여기에 치유산업연구회(액션그룹)의 관련 치유프로그램까지 연계하여 더욱 풍성하게 구성됐다.

디저트 카페(음면, 판매제품) 현황은 멸치 496(무안읍, 크림볼 군고구마 휘낭시에 등 5종), 아몬드데이블(남악, 군고구마 바스크 치즈케이크 등 2종), 요거프레소(남악, 무안쥬 등 6종), 단물가게(남악, 맛나구마 등 2종), 베이커스모먼트(남악, 군고구마 퀴아방 등 5종), 에피타(남악, 3단 군고구마 가또 등 2종), 카페블라(운남, 황토밭 군고구마케이크 등 7종)이고, 해당 제품들은 올해 2월부터 군에서 진행해온 상품과 컨설팅을 통해 실제 판매할 수 있는 군고구마 디저트로 완성되었고, 이번 축제를 통해 첫선을 보이기에 의미가 크다.

한편, 군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하나로 군고구마 반죽(페이스트)을 하루 1.5톤씩 생산할 수 있는 전략품목융복합산업센터를 올해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무안=이기성기자

목포시, 폐현수막 활용한 '큰물고기' 자루 제작 사업 추진

자루 제작해 삼학도, 평화광장, 노을공원 등 청결 활동 및 전시

목포시가 전라남도 주관의 '2023년 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2,000만원을 확보해 큰물고기 자루 제작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목포시를 포함한 11개 지자체가 선정됐는데, 재활용이 어려운 폐현수막을 활용한 신규 사업인만큼 각 지자체가 많은 관심을 보였다.

시는 폐현수막을 활용해 목포시 새마을지

회와 함께 큰물고기 자루 150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큰물고기 자루를 이용해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삼학도, 북항노을공원, 평화광장에서 청결활동을 진행했다.

청결활동 외에도 제작된 자루 전시와 배부도 이어진다.

시는 노을공원과 평화광장에 중형 물고기 자루와 소형 물고기 자루 30개를 오는 26일까지 전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수막 재

활용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수막 자투리를 활용한 자루 및 장바구니도 제작해 배부할 예정이다. 위생에 문제가 없도록 세척과정을 꼼꼼히 거쳐 자루와 장바구니를 제작한 후 기획홍보를 전개하고 동부시장 등에 장바구니를 배부할 예정이다.

석유화학 소재로 만든 현수막은 재활용이 어려워 국내에서 연간 약 1,000만장 이상의 현수막이 소각·매립의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연 4만톤의 온실가스나

오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목포시는 이러한 폐현수막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정책을 실현해 환경보호에 힘쓰는 한편, 앞으로도 폐현수막을 재활용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김재진 시 건설과장은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목포시 환경을 보호하고 목포시 주관으로 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친환경정책을 실현하겠다"면서 "현수막 재활용 뿐만 아니라 폐현수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영광=서희권기자

영광군, '잔가지파쇄기 무상임대' 실시

2024년도 봄철 산불방지 기간인 4월 40일까지 6개월간

농부산물(고춧대, 옥수수대, 감·오디나무 전정 가지 등)을 파쇄하여 소각할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산불 발생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

영광군농기계임대사업소는 잔가지파쇄기 3종 1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용 대상자는 농업인 단체, 마을, 개인 농가로 예약을 통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영농부산물을 파쇄하면 유기물 함량이 높은 양질의 퇴비가 되고 토양의 비옥도(肥沃度)를 높이는 데 사용이 가능하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잔가지파쇄기 무상임대 지원 실적으로 64개 마을에서 106일 동안 사용하였으며, 그 기간 무상임대료는 4백만 원으로 영농부산물 파쇄작업 촉진과

농업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였다.

2024년도 미세먼지 감축 대응 영농부산물 파쇄작업 활성화를 위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잔가지파쇄기 신규 구입비 1억 1천만 원'을 확보하였다.

농업기술센터 고윤자 소장은 "잔가지파쇄기는 고위험 농기계로 작업 전 조작 요령을 숙지하고 안전장비를 착용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잔가지파쇄기 임대 절차와 안전사용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hj1qp9uz6b)을 통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영광=서희권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